

아시아 공동체, 아세안 정세 및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

글쓴이: 陳順益

번역 : 주혜진, 강지훈

제 5회 강연을 위해 일본·대만 교류 협회 타이베이 사무소 신문 문화부의 松原一樹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아시아 공동체, 아세안(ASEAN) 정세 및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입니다. 松原 부장님의 강연 내용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자기소개, 일본·대만 교류 협회의 개요

II. 아시아 공동체, 아세안 정세 및 일본과 아시안의 관계

동남아 10 개국으로 구성된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약칭 아세안)은 1976 년 '방콕 선언 (아세안 선언)'을 통해 창설되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규모 혹은 체제, 종교 그리고 사회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다문화 국가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0 개국만으로 결성한 소규모 연대일지라도 국제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믿기에 해당 지역의 통합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 년 동남아 경제 공동체로 거듭난 아세안은 지난 10 년간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전세계 '개방 성장의 중심'의 잠재력으로 각국의 주목을 받았습니

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일본이나 대만에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I. 일본-대만 관계

일본과 대만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로 같은 가치관을 지니며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왕래가 빈번합니다. 이에 일본·대만 교류 협회는 확고하고 견고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사업이나 일본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대만 국민들에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쌍방(일본과 대만)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시간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대만 교류 협회가 실질적인 주 대만 일본 대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松原 부장님은 일본 외무성(한국의 외교부에 상응) 소속입니다. 대만에 오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주 아세안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세안 정세를 심도 있게 통찰하고 계십니다. 강연 주요 내용은 아세안의 회원국, 아세안의 구조, 아세안이 주도한 중요 회의(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등)의 소개, 그리고 아세안의 중요성입니다. 松原 부장님의 소개를 통해서야 비로소 일본과 아세안의 무역 금액이 무려 23.4 조 엔화(약 NTD 8 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당연히 귀중한 수업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세안에 소속한 10 개국은 강대국이 아니며 각 회원국 사이에 국가 규모나 체제, 종교, 사회문화 등 많은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2억 6천 3 백만명에 달한 나라(인도네시아)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43 만명밖에 되지 않은 나라(브루나이)도 있습니다. 국민 GDP 가 5 만 7 천달러에 달한 나라(싱가포르)가 있는가 하면 GDP 가 1500 달러 미만인 나라(캄보디아, 미얀마)도 있습니다. 비록 소국일지라도 연대를 이루면 국제사회에 충분히 존재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1967 년 아세안을 창설하여(회원국 5 개) 냉전 이후 회원국이 10 개로 늘어났고 2015 년 동남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이번 학기 수업 주제인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ONE ASIA 재단의 목표인 '아시아 공동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과 동남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은 동아시아 공동체 및 아시아 공동체에 있어서 목표를 향한 뜻 깊은 한 걸음이며 동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松原 부장님께서서는 일본·대만 교류 협회 신문 문화부의 3 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

1. 소셜 네트워크(SNS) Facebook (정책 홍보의 중요도구)

(대만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사업

문화 활동(일본 전통/현대 문화 소개, 다른 단체 활동 후원)과 JENESYS(매년

80 명 대만인을 일본에 초청, 20 명의 일본인을 대만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

2. (대만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사업

(1) 일본어 교육의 지원

- 고등교육(대학교, 대학원) 지원
- 중등교육(고등학교) 지원
- 일본어 협력 파트너 파견 업무(2017 년부터 진행중)

(2) 일본 유학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 장학금 지원
- 대만 고등학생의 일본 유학 업무(2017 년부터 진행중)

(3) 일본 연구지원(인문, 사회과학)

- 객원교수를 파견, 관련 활동 지원
- 논문 작성을 위한 일본 방문을 지원

이 외에도 松原 부장님은 현재 일본·대만 교류 협회 신문 문화부의 가장 큰 과제는 대만국민에게 대만정부가 과거 311 지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5 개 현(縣)의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며 과학적 수치로 해당 지역 식품의 안전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의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식품에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적 기준 (일반 식품의 기준치는 1KG / 100Bq) 을 정확하게 규정했기에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으로 식품 수출 가능한 5 개 현(縣)을 포함한 17 개 현(縣)을 대상으로 방사선 물질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3 년(2015 년-2017 년)간 일부 야생 동물과 조류 고기 외에 99.999%의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11 지진 때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원전 누출사고 이후, 54 개국이 해당 지역의 식품 수입을 규제했으나 지금은 29 개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전적으로 철폐했고 23 개국이 일부 규제를 완화한 상태입니다. 일본산 식품의 산지와 품목을 제한하며 특정 현(縣)의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대만과 중국 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 5 개 현(縣)의 식품 수입 문제는 대만에서 정치 문제로 변질되어 단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듬 월(11 월)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만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